

■ 제 목 : 편백나무 숲이 아름다운 축령산 숲길



■ 위 치(도로명)

-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 북일면 문암리(군도 15호선)

■ 특 징

- 축령산은 인공조림된 숲 중에서 가장 건강한 숲으로 손꼽히며, 짙고 짙은 삼나무와 편백나무(편백나무의 평균높이는 18m, 수령은 30~50년, 밀도는 1ha에 700~2500그루)가 창검처럼 에워싸 여름 열기도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함
- 숲길은 북일면 문암리와 서삼면 모암마을을 연결하는 약 6km의 완만한 경사를 가진 비포장 길로서 차가 다닐 수도 있지만 걷는 것이 더 좋은 길이며, 땀을 식혀주는 산바람과 상쾌한 공기에 가슴이 확 트이는 곳임
-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 전국의 산림전문가 및 개발도상국의 임업인들이 단골로 찾는 코스가 되고 있으며,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활용되고 있음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홍길동 생가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민중의 영웅 홍길동이 조선 왕조실록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황룡면 야차곡에서 실존 인물로 다시 태어났다. 홍길동 생가 터를 중심으로 발굴 작업을 벌여 주춧돌 및 백자와 분청사기를 발굴하고 생가 터는 원형대로 보존하였으며, 홍길동전시관에는 출토된 유물과 600여권의 홍길동 관련 책자, 다양한 캐릭터, 입체 영상물이 전시되어 있어 홍길동의 생애를 감상할 수 있다.

필암서원



필암서원은 도학, 절의 문장에 모두 탁월하여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선생을 모신 서원으로, 고종때 서원철폐령에도 호남에서 단 한곳만 남은 유서 깊은 곳이다. 우동사, 경장각, 송의제, 진덕제, 청절당 등의 건축물이 있으며, 노비보 등 14책 64매의 고문서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장판각에는 문집판, 목죽도판 등 600여 매의 판각,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필암서원에서는 현재에도 선비학당을 운영하고 있어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금곡 영화마을



금곡 영화마을은 전형적인 산촌마을로서 모정에서 바라본 마을전경은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와 함께 50~60년대의 농촌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외부로 부터 잡음이 전혀 없고 태양광선이 매우 양호하여 영화촬영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인 거장 임권택감독은 태백산맥의 주무대로 이곳을 택하였고 이후 내마음의 품금, 왕초 등도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 제 목 : 자전거도로와 함께하는 소래포구 가는 길



■ 위 치(도로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소래길)

■ 특 징

- 소래길은 신비의 천연포구,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소래포구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자전거 및 인라인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용도로를 별도로 확보하여 자전거 및 인라인 이용자에게 좋은 평을 듣고 있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도로임
-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통행편의를 제공하며, 남동공단 및 시화공단의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여 도시교통난 해소 및 물류수송비용 절감에 기여
- 자전거도로 주변 곳곳에 휴식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차도에는 도심지 6차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함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소래포구



소래포구는 1930년대에 전국 제일의 소래염전이 들어서고 국내 유일의 협궤열차가 다니는 수인선이 개통됨에 따라 발전하게 된 어촌 마을이다. 소래를 찾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무엇보다 철교를 이용해 바다를 건너는 것인데 소금과 쌀을 실어 나르던 수인선은 이제 폐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협궤열차의 옛 추억을 되새겨보려는 사람들로 늘 붐비고 있다. 또한 생새우와 육젓, 추젓 등 온갖 젓갈류를 싸고 푸짐하게 구입할 수 있고, 사시사철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은 인천 유일의 자연녹지 대단위 공원으로서 사계절 푸르른 숲속을 거닐고 있는 느낌을 주는 식물원을 비롯하여, 사슴, 꽃돼지 등을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어린이 동물원 그리고 시원한 분수대 등이 있어 가족과 연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봄철에는 벚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가을철에는 관모산 단풍들이 울긋불긋 자태를 뽐내는 경치가 가히 일품이다. 특히, 거수골의 메타스퀘어거리의 단풍모습은 대공원 가을경치의 절정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해양생태공원



인천 해양생태공원은 갯벌 갯골과 폐염전 지역을 다양한 생물군락지 및 철새도래지 등으로 복원시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및 현장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자연적인 해양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찾는 이들이 자연을 직접 느끼고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수생·습생·염생 식물 등 식생 191종, 저서동물인 갯벌 생물 11종, 어류7종, 양서·파충류 5종,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 조류 71종, 육상곤충류 및 담수대형무척추 동물 273종 등 다양한 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 제 목 : 자연과 함께하는 길 【학의천 산책로】



■ 위 치(도로명)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학의천 산책로)

■ 특 징

- 학의천은 안양천의 지천으로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을 거쳐 한강으로 흐르는 대표적인 도심하천임
- 8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죽음의 하천이 된 안양천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자연하천으로 생태복원한 대표적인 성공사례
- 노랑꽃창포, 붓꽃, 털부처, 감국 등 초화류를 식재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피며, 물새, 개구리, 풀벌레소리를 들으며 산책할 수 있고 갈대, 갯버들을 식재하여 운동, 산책, 자전거, 인라인, 생태탐방, 자연학습 등 많은 시민이 이용
- 자전거도로는 의왕시 백운저수지부터 안양, 광명, 금천, 구로를 거쳐 밤섬, 여의도, 잠실, 탄천, 양재천으로 연결됨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백운저수지



백운저수지는 전체면적 36만 3636㎡로서 1953년 안양·평촌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처음에는 저수지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평촌이 신도시가 되면서 저수지에서 호수로 바뀌었다. 주변에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 등이 있어 현재는 이 일대가 유원지화 되었다. 주변의 산에서 흐르는 물이 유입되어 물이 맑고 경치가 수려하며, 서울에서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중앙공원



안양 중앙공원은 각종 조경수와 편의시설을 비롯하여 다목적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4계절 테마를 부여하여 4계절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토·일요일에는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알뜰벼룩시장의 문화공간, 가족과 연인끼리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메니아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젊음의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이다.

안양 1번가



재래상권인 안양시장이 1926년 이곳에 개설되어 상권의 기틀이 다져졌으며 현재는 컴퓨터, 통신, 시네마 등 쇼핑과 문화가 잘 융화된 안양최대의 변화가로 부상하였다.

안양의 금융, 교통, 상권을 태동시켜 지역 발전을 일으킨 상징적 의미에서 안양 1번가로 부르게 되었으며, 매년 10월에 젊음의 도시·패션의 거리 안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번가 거리 대축제가 열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함께 자유 그리고 멋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제 목 : 자연이 숨쉬는 도로 【약수자전거 도로】



■ 위 치(도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약수 자전거 도로)

■ 특 징

- 동천을 따라 약 10km 구간에 걸쳐 조성된 자전거도로로서 동천변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약수천을 횡단하는 약수자전거도로교는 흔히 볼 수 있는 아치교가 아니라 노면에 굴곡을 주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
- 투수콘, 황토, 우레탄 등의 다양한 포장재료를 이용하여 자전거 주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04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수준의 자전거 전용도로임을 입증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신명·정자해변



넓은 바다의 품이 그리운 사람들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특히 겨울바다가 유명하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입심 좋은 아낙들과 횃거리를 흥정하는 사람들의 정겨운 풍경이 펼쳐지며, 이곳 특유의 멀치회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생동감 넘치는 포구와 눈이 시리도록 푸른 동해바다 깨끗한 몽돌해변, 그리고 끼룩대며 쫓는 수많은 갈매기 떼 등 이 모든 풍경이 한데 어우러져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외고산 용기마을



국내 최대의 전통민속 용기마을로 재래식 용기제조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마을전체가 용기로 어우러져 이색적인 마을 풍경을 자아내며, 특히 눈오는 날에 집집마다 용기를 굽는 풍경은 옛 마을의 평화롭고 온화한 정취감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신라 토기를 재현하는 곳도 있어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적극 권장할 만한 곳이기도 하다.

울산 체육공원



울산체육공원은 침엽수, 육송 등 교목 9,221주와 영산홍, 백철쭉 등 관목 233,043본 등을 식재하고 다양한 조형물과 산책로, 야외공연장, 호반광장 등이 조성된 자연친화적인 공원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세계 축구계의 보석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문수축구경기장과 주변의 문수산, 남암산, 호수 등의 자연경관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비경을 연출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 제 목 : 바닷길을 가르는 길 【오동도 방파제】



■ 위 치(도로명)

- 전남 여수시 오동도(오동도 방파제 길)

■ 특 징

- 여수의 대표적인 자랑거리 중의 하나인 오동도는 오동나무가 많고 오동잎처럼 보인다하여 오동도라 불리며 전국 최대의 동백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음
- 오동도 방파제는 바다위에 활짝핀 동백섬 오동도를 연결하는 길이 768m의 방파제로서 벽화가 그려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예총 여수지부의 협조를 받아 여수미술협회 소속 현역작가들이 공동 작업으로 완성한 이 방파제 벽화는 바다 속 풍경, 물고기 등 사실화 3점과 돌산대교, 무술목, 거북선 슈퍼그래픽 11점 등 총 14점으로 이루어져 있음
- 기능성 및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오동도



멀리서 보면 섬의 모양이 오동잎처럼 보이고, 옛날에는 오동나무가 유난히 많아 오동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남해안도서지역에서 자생하는 상록 난대성수종인 동백, 신이대, 후박, 해송 구실잣밤나무를 비롯하여 전국 최대의 동백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 ‘동백섬’ 또는 ‘바다의 꽃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섬 전체는 완만한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높은 해식애가 발달해 있으며, 소라바위, 병풍바위, 지붕바위, 코끼리바위, 용굴 등으로 불리는 기암 절벽이 절경을 이룬다.

자산공원



여수시 동남쪽 자산 정상에 있는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으로 자산이라는 이름은 일출 때 산봉우리가 아름다운 자색으로 물든다 하여 붙여졌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공원 정상에 오르면 넓은 평지에 수천 그루의 상록수와 화초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여수 시가지와 종고산, 마래산, 구봉산을 비롯하여 장군도, 돌산대교, 돌산도, 오동도, 신항부두, 남해군의 아름다운 전망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들어온다.

만성리 해수욕장



전국에서 보기 드문 검은 모래 해수욕장으로서 이곳에서 모래찜질을 하게 되면 신경통과 각종 부인병에 효험이 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음력 4월 20일이 되면 모래가 눈을 뜨다 하여 ‘검은 모래 눈 뜨는 날’로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어 이날이 되면 해마다 전국 도처에서 모여든 찜질인파로 북민다.

오동도와 남해를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싱싱한 회 맛은 이곳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 제 목 : 푸르른 속으로 가는 길... 【송광사 진입도로】



■ 위 치(도로명)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 해월리(지방도 741호선)

■ 특 징

- '푸르른 속으로 가는 길'은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마수교에서 대흥리까지 늘어선 멋들어진 벚꽃길로서 도로 양옆으로 40년생 벚나무가 2km구간에 걸쳐 빼곡히 늘어서 있음
- 매년 4월경이면 입구에서부터 도열하듯 쪽쪽 뺨은 울창한 벚나무 숲과 이를 에워싸듯 은빛 물결 출렁이는 벚꽃터널이 운치를 자아내며, 여름철이면 짙은 녹음으로 뒤덮인 푸른 나뭇잎터널이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냄
- 주변에는 송광사와 위봉사, 위봉폭포, 원등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며, 화심순두부와 토종닭백숙, 민물매운탕 등 먹거리 또한 다양한 곳임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송광사



전주부 송광사 개창지비에 따르면 송광사는 광해군 14년 승려 응호승명, 운쟁, 덕림, 득정, 홍신 등이 보조국사의 뜻을 받들어 세운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종남산 자락에 위치한 문화재 보고 송광사에는 대웅전과 십자형 범종각(보물제1244호)을 비롯 국내 제일의 소조삼불좌상(보물제1274호), 사천왕상 등 보물 4점과 다수의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다.

위봉산성



위봉산성은 이태조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축성했던 성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높이 3m, 폭 3m의 홍예석문이 지방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다. 이 산성은 숙종 원년 7년의 세월동안 인근 7개 군민을 동원하여 쌓은 것이며, 유사시에 전주 경기전(慶基殿)에 있는 태조의 영정과 시조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부성이 동학군에 의해 함락되자 태조의 영정과 시조의 위패를 이곳으로 피난시킨 일이 있었다.

위봉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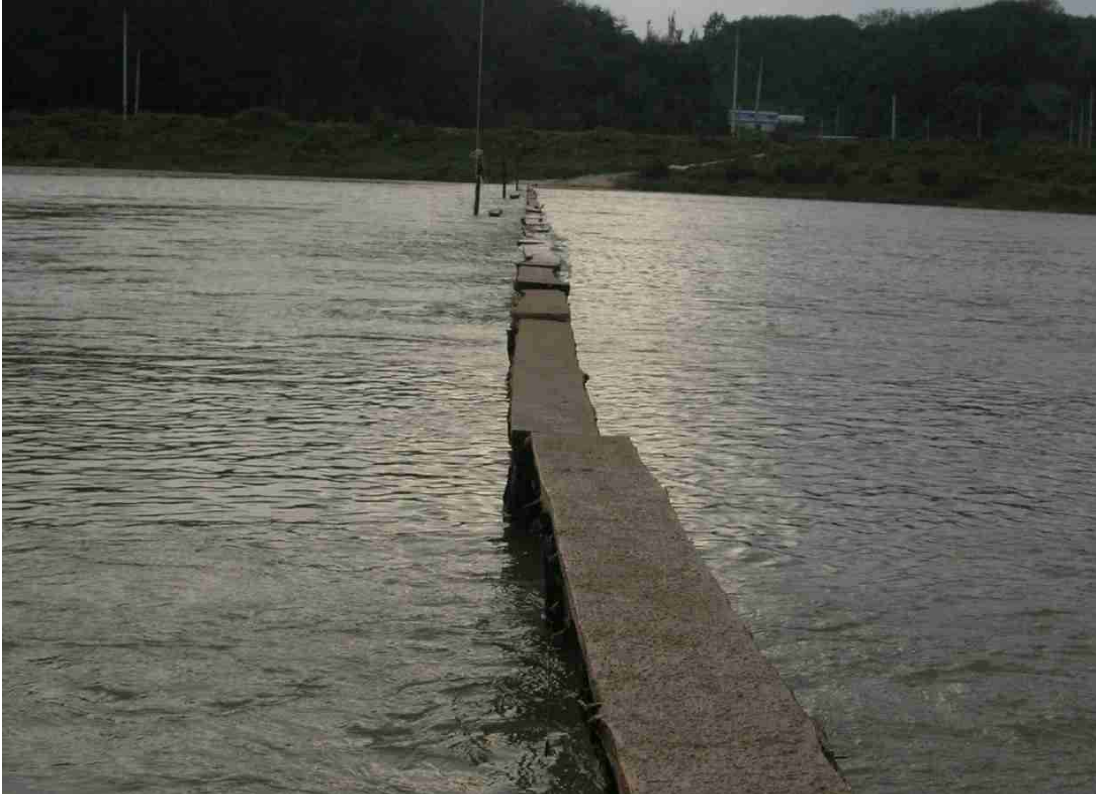


예로부터 완주 8경으로 이름난 위봉폭포는 소양면 대흥리 추출산 허리에 자리하고 있다.

높이 60m의 2단 폭포로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며, 답답하게 닫힌 가슴을 시원스럽게 열어준다.

수량이 많은 여름철, 폭포의 경관은 더욱 빼어나지만, 겨울 또한, 뽕뽕 얼어붙은 하이얀 비단폭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 보는 이의 눈길을 끄는 곳이다.

■ 제 목 : 마을과 물이 이어지는 길 【무섬 외나무다리】



■ 위 치(도로명)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무섬마을(무섬외나무다리)

■ 특 징

- 문수면 수도리 무섬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고가(古家)가 그대로 보존된 전통 마을로서 내성천(乃城川)이 마을의 3면을 감싸 듯 흐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섬(島)처럼 떠 있는 육지 속 섬마을임
- 30년 전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이어 다리를 놓고 내성천을 건너 물의 발로 일하러 갔으며, 장마가 지면 다리는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다리를 다시 놓았음
- 현재의 외나무다리는 지난 350여년간 마을과 물을 이어준 유일한 통로로서 가구 주민들이 30년전 방식으로 나무를 잘라 만든 다리임
- 역사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소백산



소백산은 영주, 예천, 단양, 영월 네 고을의 배경이 되어 고장의 평화와 행복을 수호하며, 기품 있는 선비의 품모처럼 맑고 수려한 기상의 영기어린 성산이다.

소백산 중턱에는 신라시대 고찰 회방사와 비로사가 있고, 회방사 입구에는 영남 제일의 회방폭포가 년중 시원한 물줄기로 피서객들을 즐겁게 맞고 있다. 특히, 해마다 5월이면 철쭉꽃의 장관과 상수리나무 숲 터널은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으며, 년중 6개월 정도 백설로 뒤덮여 있는 비로봉은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워져 오고 있다.

소수서원



무너져가는 교학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소수서원은 조선 중종 37년(1542)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웠으며,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이서원에서는 수많은 명헌 거유가 배출되었으며, 학문탐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많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방 칸칸마다 역사의 깊이와 학문의 심오함이 서려 있는 소수서원은 충.효. 예. 학이 살아 숨 쉬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흑석사



흑석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서 사찰 인근에 검은 빛깔의 바위가 있어 흑석이라 불리는 마을의 이름을 따와 흑석사라 하였다.

이곳에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석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수점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석조여래좌상은 대좌광배를 모두 갖춘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으로 대좌와 광배 부분에 연꽃, 구름, 화염, 안상 등이 다채롭게 장식되어 9세기 석불좌상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 제 목 : 올림픽대교의 반영



■ 위 치(도로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광진구(올림픽대교)

■ 특 징

- 대한민국 세계화의 시발점인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영구히 기념하고 올림픽 경기장 주변 교통처리를 위해 건설된 국내최초의 콘크리트 사장교
- 88서울올림픽을 뜻하는 높이 88m의 주탑 4개가 서있으며, 주탑은 올림픽 성화대 모양을 형상화하였음. 4개의 주탑은 연·월·일·시의 4주와 4계절, 4방향을 의미하며, 케이블 24개는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를 의미함
- 올림픽대교 건설과 함께 남단 고수부지에는 2,500평 규모의 도로공원과 지구촌의 화합을 상징하는 지름 6m의 5륜과 24개의 기념조형물이 조성되었음
- 예술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롯데월드



롯데월드는 실내의 공간에서 모험과 신비, 관광과 스포츠,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천후 복합문화공간이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천장 전체가 돔형의 유리로 덮여있어 비가와도 걱정이 없으며, 국내 최초의 호수공원인 매직아일랜드는 모노레일과 구름다리로 어드벤처와 연결되어 맑고 푸른 석촌호수와 주변의 자연으로 둘러싸여 마치 동화 속의 마을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올림픽 공원



'86 아시아경기대회와 '88 서울올림픽'에 맞추어 1986년 준공되었으며, 43만평의 대지 위에 잔디밭, 넓은 광장과 곳곳의 조각품들, 조깅코스 등이 잘 가꾸어져 있다. 또한, 올림픽공원의 야외무대와 6개 국제 규모의 경기장은 각종 콘서트나 문화행사의 단골장소이기도한데, 세계적인 가수 존 덴버, 기타의 신이라 불리는 에릭 클립튼, 미국 4인조 헤비메탈그룹 메탈리카 등이 이곳에서 공연을 가진바 있다.

아차산



서울과 구리에 걸쳐 있는 아차산은 해발 3백m 밖에 되지 않은 야트막한 산이지만, 삼국시대의 전략요충지로 특히 온달장군의 전설이 전해져 오는 곳이다. 학문적 고증과는 상관없이 이 지역 주민들은 온달장군이 아차산에서 전사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아차산에는 '온달샘'이라 불리는 약수터와 온달이 가지고 놀았다는 지름 3m의 거대한 공기 돌이 있다.

■ 제 목 : 카멜레온 돌산대교의 야경



■ 위 치(도로명)

- 전남 여수시 남산동 ~ 여수시 돌산읍(국도 17호선)

■ 특 징

- 여수시 남산동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사이에 놓인 길이 450m, 폭 11.7m, 높이 62m의 사장교
- 총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50여 가지의 기본색상 연출이 가능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정서를 갖게 하며, 돌산대교의 아름답고 다이내믹한 야간조명을 바라보면서 일상생활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여수의 상징적인 관광명소
- 돌산대교 주변에 다도해와 여수항이 바라보이는 돌산공원과 모형 거북선이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대를 유람선이 운항하여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음
- 예술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돌산공원



돌산대교를 건너가다 마주 보이는 곳이 돌산공원이다. 이른 봄이면 개나리가 활짝 피어 관광객을 맞는 돌산공원 광장에 오르면 주차장, 기념탑, 가로등, 산책로 등이 잘 정비되어 있다. 돌산 공원은 여수항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곳으로 저녁 무렵에는 하나 둘씩 귀향하는 배들의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오동도



여수의 대표적인 자랑거리 중의 하나인 오동도는 오동나무가 많고 오동잎처럼 보인다하여 오동도라 불리는데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자연림, 야경 등이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오동도 입구와 상가 근처에는 해상 관광을 할 수 있는 유람선과 모터보트 선착장이 있으며, 오동도 앞바다는 멀리 만성리 해수욕장, 마래산 전경, 여수항, 자산공원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진남관



진남관은 국내 최대 단층 목조건물인 국보 제 304호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18세기 초에 건립된 건물이지만 당시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건물이다.

진남관 내의 임란유물전시관은 임란 때의 해전 상황, 이순신 장군 유물, 영정, 기념비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제 목 : 지안재 야경



■ 위 치(도로명)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함양읍 구룡리(지방도 1023호선)

■ 특 징

- 지안재와 오도재는 옛날 내륙지방 사람들이 남해안쪽 사람들과 물물교환을 하 고자 지리산 장터목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했던 고개임
- 굽이굽이 고갯길을 휘감아 오르면 지리산으로 갈 수 있으며, 낮에 보아도 아름답지만 특히, 야경이 아름다움
- 여름밤에는 반딧불의 군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기가 맑고 '가루지기'전의 주인공 변강쇠와 웅녀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하며, 오도재 정상에는 그 옛날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무사히 재를 넘고 장사가 잘 되도록 산신령에게 기원하였 다는 비석이 서있음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상림공원



상림공원은 함양읍 서쪽을 흐르고 있는 위천의 냇가에 자리잡은 호안림으로 신라 진성여왕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이 독을 쌓아 강의 흐름을 지금의 위치로 돌리고 나무를 심어서 지금의 숲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의 하나로서 현재는 풍치림 또는 휴양림의 역할을 하며, 이 숲에서 자라는 식물을 공부할 수 있는 학습원의 역할도 하고 있다.

지리산 자연휴양림



지리산 자연휴양림은 봄철 벽소령의 잔설아래 산벚나무꽃의 아름다움과 고로쇠 수액의 음용, 광대골 및 비리내 계곡의 맑고 충분한 물을 갖춘 여름철 피서 휴양문화의 적지이다. 가을철 지리산 계곡의 단풍관광을 겸한 산악 등반이 가능하며, 겨울철의 지리산 설경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조용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칠선계곡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 한라산의 탐라계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손꼽히는 칠선계곡은 지리산의 대표적인 계곡이다.

험난한 산세와 수려한 경관, 그리고 지리산 최후의 원시림을 끼고 있는 칠선계곡은 천왕봉 정상에서 마천면 의탄까지 장장 18km에 걸쳐 7개의 폭포수와 33개소의 소(沼)가 펼쳐지는 대자원의 파노라마가 연출되는 곳이다.

■ 제 목 : 모래재



■ 위 치(도로명)

- 전북 완주군 소양면 ~ 진안군(구국도 26호선)

■ 특 징

- 전주에서 진안으로 가는 국도26호선을 따라가다 완주군 소양 화심에서 구국도 26호선(모래재구간) 모래재 터널을 거쳐 진안으로 이어지는 도로임
- 산속을 깎아지르듯 이 굽이굽이 놓여있는 도로를 지나다보면 먼 산속 풍경을 볼 수 있어 시원한 풍취를 느낄 수 있으며, 오렌지색의 '무진장' 시골버스가 푸른 나무사이로 다니는 모습 또한 정겨운 도로임
- 모래재 휴게소를 지나 조금 더 가다보면 메타세콰이어가 1km정도 어우러진 최상의 드라이브 코스가 나타나며, 거대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에워싼 이 구간에서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국적인 정취를 맛볼 수 있음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대아저수지



대아저수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답지 않게 자연스럽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운암산(597m)과 우아하고 부드러운 산세의 동성산에 에워싸인 잔잔하고 푸르른 호수의 물은 남쪽의 동상저수지와도 이어져 있다.

대아저수지를 감돌아 동상저수지에 이르는 호반도로는 말끔히 포장되어 드라이브 코스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다.

원등산



원등산은 일명 청량산이라고도 불리며,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번 찾으면 또 찾고 싶을 만큼 여운을 주는 곳이다. 다리목마을에서부터 오르는 등산로는 오르면서 오를수록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하는 구간이며, 원등사를 거쳐 정상에 오르면 북으로는 위봉산과 동상저수지, 북동쪽으로는 금남정맥의 최고봉인 운장산과 연석산, 남으로는 만덕산이 수려한 풍광을 자아내는 멋진 곳이다.

화심온천



화심온천은 호남지방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온천으로 역사가 있는 온천이다. 온천수의 성분은 중탄산나트륨이 함유된 알칼리성 온천이며, 피부미용, 신경통, 관절염, 류머티즘,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전주, 마이산 및 완주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온천욕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며, 한식당, 커피숍, 모텔숙박, 노래방, 단체놀이 시설, 회의실 등을 겸비하고 있다.

■ 제 목 : 굽이 굽이 옛정



■ 위 치(도로명)

- 강원 강릉시 성산면 ~ 평창군 도암면(지방도 456호선)

■ 특 징

- 강원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에 있는 아흔아홉 굽이진 고개 대관령은 해발고도 832m, 총연장 13km로서 서울과 영동을 잇는 태백산맥의 관문임
- 가을 찬바람이 겨드랑이 사이로 스며드는 계절, 옛 길의 S자형 모습에 대관령의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게 하며, 눈이 오면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비탈진 대관령 길, 폭설로 인해 도로상에서 차가운 겨울밤을 지새는 옛 날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 남아 있을 단편 소설과 같은 도로임
- 대관령 일대는 한랭 다우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서리가 내리는 지역이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스키장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대관령 자연휴양림



전국 최초(1988년)로 조성된 자연휴양림으로서 휴양림내 50년~200년생 아름드리 소나무 숲 중 일부는 인공으로 소나무씨를 뿌려 조성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산림이다. 특히, 숲속수련장은 강의실과 숙박시설, 잔디광장, 숲속교실 등을 구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자기학습식 숲 체험로, 야생화정원, 황토초가집과 물레방아, 솟가마터 등은 색다른 볼거리로 가족단위의 자연학습과 산림문화 체험장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관령 국사성황당 및 산신각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당은 영동지역의 가뭄, 홍수, 폭풍, 질병, 풍작, 풍어 등을 보살펴 주는 영험한 신을 모신 사당이며, 중요무형문화제 제13호인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사당에는 일반적인 산신도 형식의 탕화를 모시고 있으며, 신들의 노여움을 풀고 복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매년 음력 4월 1일이면 이 곳에서 제사를 올리고, 4월 15일에는 서낭사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굿놀이를 한다.

대관령 박물관



신사임당이 어린 울곡을 데리고 넘었던 아흔 아홉 구비 대관령 옛길 입구에 위치한 대관령박물관은 청동기시대 고인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6개 전시실과 야외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2,000여점의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으며, 전통 사방을 상징하는 청룡, 백호, 현무, 주작방과 우리방 및 토기방에는 토기, 민속, 서화 등 각 시대의 유물을 주제별로 한자리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 목 : 미지(美知)의 길 【울곡로】



■ 위 치(도로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울곡로)

■ 특 징

- 울곡로는 고궁 돌담과 가로수가 어우러진 도로로서 원래는 창경궁과 종묘가 붙어 있었으나 일제가 1931년 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창경궁과 종묘를 나누어 그 가운데로 길을 낸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도로임
- 이 길이 지나는 관훈동에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유학자 이이(李珣)가 살았던 곳이 있어 그의 호를 붙여 울곡로라 명칭하게 되었음
- 동십자각에서 이화동4거리를 거쳐 동대문에 이르는 폭 30m, 연장 3km의 동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임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창덕궁



창덕궁은 굴곡이 많은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자연과 적절히 조화된 건물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후원에는 각양각색의 정자와 수만 그루의 수목과 화초가 가꾸어져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전통 정원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창덕궁은 1997년 모든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창경궁



창경궁의 원래 이름은 수강궁으로 세종이 즉위하면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며, 이후 성종 14년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하여 새로 중건하고 이름을 창경궁으로 바꾸었다.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고 하였는데,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으면서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동물원과 식물원, 이왕가 박물관이 들어서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격하되는 등 수난을 겪었으나 1983년 동물원과 식물원을 옮기고 이름도 창경궁으로 되찾았다.

동대문 쇼핑타운



국내 최대의 패션 쇼핑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동대문은 다양한 쇼핑 물과 빅 이벤트로 언제나 볼거리가 가득하다.

연령, 국적에 상관없이 동대문 시장 자체를 즐기는 인파들로 동대문은 1년 365일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며,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야간 쇼핑관광은 동대문을 찾은 쇼핑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한다.

■ 제 목 : 동해안의 아름다운 국도



■ 위 치(도로명)

- 강원 양양군 양양읍 정암리 ~ 속초시 대포동(국도 7호선)

■ 특 징

- 국도7호선은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있는 국토간선도로로서 동해안 일주도로라고도 불리며, 총연장이 506km에 달하는 국내최장 해안도로임

- 국도 7호선 중 강원도 양양~속초 구간은 해안을 감도는 시원함과 설악산 숲 속 짙은 향기가 배어있는 고품격 무공해 도로로서 바다를 바라만 보아도 도시에서 찌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듯 가슴이 후련하며, 푸른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끝없이 길게 늘어지는 모래사장의 풍경이 아름답음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낙산해수욕장



속초에서 남쪽으로 16km 지점에 위치한 낙산해수욕장은 동해안 지역의 많은 해수욕장 중에서 경포대 해수욕장과 함께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4km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남대천이 하구에 큰 호수를 이루고 있어 담수도 풍부하다. 부근에 관동팔경의 하나인 낙산사와 의상대 등 명찰과 고적이 있어 많은 관광·휴양객이 찾는 곳이다.

대포항



설악산 기슭의 깨끗한 바닷가에 자리 잡은 대포항은 남쪽에서 속초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 할 수 있으며, 설악산이 두드러진 관광지로 바뀔에 따라 고급생선의 집산지로 유명하게 되었다.

설악산과 척산온천, 동해바다, 청초호와 영랑호의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에 대포항이 위치해 있어 최근에 와서는 어항으로서의 대포보다는 관광지로서의 대포로 더욱 더 각광을 받고 있으며, 연평균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신선한 생선을 즐기려고 찾는 곳이다.

속초해수욕장



눈부신 백사장을 푸른 송림이 감싸고 있는 속초해수욕장은 모래의 질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수질이 청결하고 송림이 운치를 더하여 속초시민과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약 9,000평에 달하는 넓은 모래사장을 보유하고 있고 수심이 평균 1m로 완만하여 가족 피서지로 적합하며,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특히, 이곳은 설악산과 가까워 내설악 쪽에서 대청봉을 거쳐 설악동으로 내려오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 제 목 : 고창읍성 산책로



■ 위 치(도로명)

- 전북 고창군(고창읍성 내 성곽길)

■ 특 징

-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외침을 막기 위하여 축성한 자연석 성곽으로 모양성(牟陽城)이라고도 불림
-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밟으면 병이 없이 오래살고 저승길에서는 극락문에 당도한다는 전설로 매년 답성행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성밟기는 저승문이 열리는 윤달에 밟아야 효험이 있다고 하여 이때 답성행렬이 절정을 이룸
- 윤삼월의 효험을 강조하고 있음은 겨우내 부풀었던 성을 밟아 굳게 하기 위함이고, 머리에 돌을 이게 함은 체중을 가중시켜 성을 더욱 다지게 하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됨
- 역사성 우수

■ 주변 관광지

고창고인돌 유적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BC 4~5 세기경 조성된 동양 최대의 고인돌 집단 군락지로서 우리 선조들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으며, 고창 고인돌의 조밀한 분포는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대 고인돌군은 전형적인 농촌 토지이용 형태로 남쪽에 논을 중심으로 한 농경지가 분포하고, 북쪽으로 경사면을 따라 산림이 형성되어 있으며, 고인돌은 산림과 농지 사이의 경계선상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선운산



선운산은 호남의 내금강으로 불리 우는 명승지로서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선운산은 도솔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선운이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이고 도솔이란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궁의 뜻으로 선운산이나 도솔산이나 모두 불도를 닦는 산이라는 뜻이다. 곳곳에 기암괴석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고 숲이 울창한 가운데 천년 고찰 선운사가 자리하고 있다.

판소리 박물관



고창판소리박물관은 판소리의 이론가이자 개작자, 후원가였던 동리 신재효 및 진채선, 김소희 등 다수의 명창을 기념하고 판소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 자리에 설립되었다. 판소리 박물관은 판소리의 유형무형의 자료를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해석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수준 높은 판소리 예술의 재교육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판소리 성지화를 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제 목 : 역사를 따라 가는 길 【죽령옛길】



■ 위 치(도로명)

- 경북 영주시(죽령옛길)

■ 특 징

- 죽령옛길은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길로서 청운의 뜻을 품은 과거 길의 선비, 공무를 띤 관원들, 장사꾼들로 붐벼 길손들의 숙식을 위한 주막, 마방들이 죽 늘어서 있던 사시사철 번잡했던 고개길임
- 추풍령, 문경새재와 더불어 삼국시대 군사적 요충지이자 영남권과 기호지방을 연결하는 3대 관문의 하나
- 영주시에서 옛 자취를 되살려 보존하기 위해 이 길(2.5km)을 다시 뚫고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자연탐방로로 개발되어 야생화 등을 볼 수 있음
- 역사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부석사



신라 문무왕 16년(서기 676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화엄종찰 부석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 5점, 보물 4점, 도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10대 사찰중 하나이다.

사찰 앞으로 펼쳐진 자연경관을 품안에 끌어안은 모습은 마치 부처님의 온화한 자비심처럼 모든 이의 마음을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희방계곡, 금선계곡



희방계곡의 희방폭포는 소백산 연화봉 밑 깊은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몇 천 구비를 돌아 돌아 이곳에 멈춰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소리와 함께 웅장한 폭포를 이루며, 우거진 잡목과 시원한 폭포가 어우러진 희방계곡은 무더운 여름철 일등 피서지로서 가히 최고라 할 수 있다.

또한, 금선계곡은 울창한 노송 숲이 끊임없이 펼쳐지며, 철따라 변모하는 소백산의 경치가 절경을 빚고 있어 사시사철 세파에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고 있다.

소백산 풍기온천



소백산 풍기온천은 지하 800m 지층에서 용출하는 천연 온천수로 불소가 다량 함유된 알칼리성 온천으로서 국내에 몇 되지 않는 유황온천중 하나이다.

유황, 불소, 중탄산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만성관절염, 신경통, 금속중독, 동맥경화증, 당뇨병, 만성 기관지염,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며, 동시에 5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하루 약 3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 제 목 : 우도산책길



■ 위 치(도로명)

-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우도 산책길)

■ 특 징

- 우도는 제주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부속도로서 섬의 형태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우도라고 이름이 지어졌음
- 우도 산책길에서 유채꽃 봄내음을 맡으며 성산일출봉을 바라보는 정취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함
- 부서진 산호로 이루어진 백사장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일본인 상인들의 착취에 대항한 우도 해녀들의 항일항쟁을 기념하여 세운 해녀노래비가 있고 남동쪽 끝의 쇠머리오름에는 우도 등대가 있음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문주란 자생지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 '란도'(일명 토끼섬)에는 문주란이 자생하고 있다. 문주란은 수선화과의 상록다년생 대형의 초본이며 열대성의 해안 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토끼섬이 유일한 자생지다.

한 여름에는 문주란 꽃이 하얗게 피어 온 섬을 뒤덮을 때 그 모양이 토끼 같다고 하여 토끼섬이라고 부르며,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비자림



비자나무 숲속의 삼림욕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피로 회복과 신체리듬을 되찾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곳 비자림에는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300~800년생 비자나무 200여 그루가 밀집되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소와 야영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단체연수나 교육, 가족 단위 여행에도 적격이다.

만장굴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만장굴은 길이가 13,422m로서 용암동굴 시스템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공인되어 있다. 굴 내부는 연중 11~21℃를 유지하여 항상 쾌적할 뿐만 아니라 희귀한 생물이 서식하여 학술적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화산 발생시 용암 분출로 형성된 '돌거북', '돌기둥', '날개벽' 등은 신의 조화인 양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제 목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길 【인사동 길】



■ 위 치(도로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인사동 길)

■ 특 징

-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엿보기 위해 제일 먼저 찾는 가장 한국적인 거리임
- 인사동은 전통과 현대, 신구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다양함과 생생함을 지닌 살아있는 문화이자 박물관과 같은 거리임
- 거리 곳곳에 한국의 역사가 배어 있는 유적지들이 남아있고, 또 한편으로 골목마다 들어선 전통찻집과 음식점, 목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필방, 고미술상과 화랑 그리고 생활 속에 예술을 구현하는 공예업소 등이 자리하고 있음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운현궁



사적 제 257호로 지정된 운현궁은 조선 말기를 대표하는 건물로 당시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이용되던 곳이다. 현재는 궁의 규모가 축소되어 사랑채인 노안당, 안채인 이로당, 노락당 만이 남아 있으며, 궁 내부에는 유물 전시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 곳에서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재현, 국악공연 등의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덕궁이나 창경궁과 달리 아담하면서도 조형미가 있는 건축물들을 찾아볼 수 있어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경인 미술관



미술관이라기 보다는 친근한 이웃집을 연상시키는 '경인 미술관'. 인근 인사동의 미술관들이 깔끔한 외형과 정돈된 분위기인 것과 달리 제1~3전시장 공간과 넓은 야외 마당, 카페와 아트숍, 전통 찻집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인간을 위한 미술'을 지향하면서 가능한 한 자연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서기 위해 인공적인 느낌을 배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경인 미술관'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갤러리 중 하나이다.

인사갤러리



인사갤러리는 인사동 한복판에 위치한 화랑으로 대관중심의 인사동 미술 특징과 작품 판매를 주로 하는 강남미술의 특성을 공유하는 곳이다. 섬유조형과 도자조각 등 다양하고 폭넓은 미술분야를 수용하고 1994년 개관 이래 에드퍼쉬키전을 시작으로 시카고 현대미술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했다. 전시 외에도 이름 없이 묻혀져 있는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는 역할과 그들의 작품을 전시, 대여, 판매하는 문화사업도 병행하며,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인사동을 방문했을 때 부담 없이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문 갤러리이다.